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의류창고관리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이○○은 2000년 2월 의류유통회사에 입사하여 창고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코막힘, 안구통증이 발생하여 2008년 8월 D병원에서 비강종양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이○○은 2000년 2월 의류유통업체에 입사하여 2008년 9월까지 옷의 하차 작업, 계절별·성별로 제품 분류, 품목별 리스트 작성, 제품 적재 및 상하차 작업 등 전반적인 창고 관리를 조립식 건물 2개의 창고에서 하였다. 근무시간은 주 6일 09~18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제품 입고시간이 늦을 때는 남아서 잔업을 하기도 하였다. 먼지가 많아 일반 먼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먼지로 인해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었고, 작업량은 여름보다 겨울이 많았으며 2007년~2008년에는 작업량이 많았다. 이월상품으로 1년 가까이 보관한 제품이므로, 종종 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 난 옷도 있었다. 창고 청소시 매일 쓸었지만 습기 방지를 위해 물청소를 하지 않았고, 3~4개월에 한 번씩 창고 바닥을 걷어내고 청소를 하는 정도였다. 창고내부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창고 안에 창문이 2면에 걸쳐 배치되어 있었다. 물건을 적재해 놓은 창고와 사무실을 비교하여 작업환경측정한 결과, 물건적재를 해 놓은 창고파트에서는 0.0045~0.009ppm사이의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이 있는 반면, 같은 공간안에서 구역만 나눈 사무실의 경우 0.023ppm, 0.024ppm으로 창고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 3. 의학적 소견

이○○의 흡연력은 약 20년간 2~3일에 1갑 정도 흡연(5~6갑년)을 하였고, 음주는 일주일에 2-3회 소주 1병씩 마셨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호흡기와 관련된 진료를 5회 받았다. 2008년 6월경부터 안구 쪽에 통증이 있고 코가 막히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다녔으나 호전없어 2008년 8월 D병원에서 비강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2차례 실시하였고, 항암치료 중에 뇌로 전이되어 D병원에서 요양 중에 2010년 3월 사망하였다.

### 4. 결론

이○○의 비강종양은

- 편평상피암의 발암성물질 노출여부와 노출량 수준을 고려할 때, 유발인자로 포름알데히드와의 관련성을 볼 수 있으나,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수준( 참고: 0.0045~0.009ppm )이 낮으며,
- 비록 약 8년간 환기와 채광이 불량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